

대구천 골목화 과정 I: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송언근*

On the Conversion of Daegucheon into Alleys I: During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Un Gun Song*

요약 :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대구천 골목화의 요인과 특징을 밝히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대구천 골목화의 핵심 토대는 대구천 복개이다. 대구천 복개는 대구천에 미친 내·외적 요인과 관련있다. 내적 요인은 대구천 스스로 복개의 필요성을 만든 것으로, 여기에는 이공제 건설과 대구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에 의한 유량 감소와 유로 축소, 그에 따른 오염 문제이다. 외적 요인은 대구천과 관계없이 근대적 도시로의 발달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가지가로 개선이 이와 관련된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이루어진 일제 강점기 대구천 복개에 의한 대구천 골목화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대구천 복개에 의한 골목화는 간선도로 건설과 관련된다. 둘째, 일본인 주거지역 중심의 도시 개발로 조선인 주거지역으로 흘러던 대구천 복개와 골목화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 셋째, 대구천 복개와 그에 따른 골목화는 1923년에서 1937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 넷째, 하수구 공사를 위한 대구천 복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어 : 대구천, 대구천 골목, 대구천 복개, 대구천 유로 변화

Abstract : This research is on factors that had influenced the conversion of Daegucheon into alleys or back streets,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of Korea. The Daegucheon covering, which was the main method of conversion of the river into alleys, was influenced largely by two factors: water control and urbanization. The conversion or covering was initiated by the narrowing and shallowing of the stream, and thus water pollution,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Leegongje and Daegucheon's channel change, on one hand; and on the other, it was initiated by the urbanization of street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city.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sion could be noticed as follows: First, the convers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main streets; second, it was partial in the residential areas for Koreans, due to the prioritization of development for Japanese; third, the covering into alleys occurred mainly between 1923 and 1937; and last, Daegucheon covering was rare for sewer.

Key Words : Daegucheon, Daegucheon alley, Daegucheon covering, Daegucheon's channel change

I. 서론

대구천은 조선시대에서 1960년대까지 대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영남대로와 조선 중기에 이전한 서문 시장, 그리고 영조 때 축성된

대구 읍성은 대구천을 따라 발달했다.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인들의 주요 주거지는 대구천 주변이었으면, 해방 후 1960년대 초반까지 대구천은 곳곳에서 유로를 유지한 채 흘러,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송언근·이보영, 2022).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song@dnue.ac.kr)

오랜 세월 대구민들의 삶과 관련을 맺어왔던 대구천은 유로의 위치, 형태, 규모를 유지한 채 골목으로 바뀌었다. 이는 '대구천 골목은 조선시대 이래 대구민들의 삶을 추론하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천 골목의 장소적 의미로 필자는 직전 연구(2022)에서 대구천 골목의 분포 특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직전 연구에 이은 것으로, 대구천 골목화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구천 골목화의 출발기인 일제 강점기와 본격적 골목화 시기인 해방 이후 중에서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대구천 유로가 골목으로 변한 요인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연구 지역은 직전 연구와 유사하게 대구천 골목이 많이 남아 있고, 대구 근대 골목 답사 프로그램인 '근대로(路)의 여행'과 연결이 용이한 건들바위에서 계산성당 주변까지이다.

주요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과 지도 분석, 그리고 현지 조사이다. 문헌은 대구천과 관련된 기존 연구, 총독부와 경상북도의 대구천 관련 자료와 신문에 수록된 대구천 관련 기사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구천 골목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와 관련된 대구천 골목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지도는 지적도와 지형도, 시가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적도는 1911년, 1929년, 1933년, 1943년 1/600 지적도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대구천 유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지형도는 1918년, 1930년, 1937년, 시가지도는 1928년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대구천 유로의 시대별 변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이다. 여기서는 일제 강점기 문헌과 지도 분석, 관련 연구들에서 살핀 대구천과 대구천 골목의 위치, 방향, 형태와 과거 대구천 골목과 현재 그것의 차이 등을 확인하였다.

II. 대구천 골목화의 내적 요인으로서 유량 감소와 유로 축소

대구천 골목화는 마을 속으로 흐르던 대구천이 어떤 원인으로 물이 흐르던 유로가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인 골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구천의 변화를 이끄는 내·외적 요인과 관련있다. 내적 요인은 대구천 자체의 문제이고, 외적 요인은 대구천과 관계없이 외부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외적

요인이 같이 작동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대구천 골목화의 내적 요인인 대구천 유로 축소와 유량 감소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대구천은 중동교와 희망교 사이의 신천에서 분류한 하천이다. 분류 지점에서 대구천은 북서류하면서 캠프헨리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흘렀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수도산, 건들바위를 따라 북류하던 대구천은 대구초등을 지나면서 읍성 남문 쪽으로 북서류하다가 반월당에서부터 읍성 남문 밖으로 서류하였다. 현재의 계산오거리까지 서류하던 대구천은 방향을 북서쪽으로 바꾸어 흐르다 계산성당 맞은편 대구제일교회 앞에서 상동천¹⁾을 합류하여 현 오토바이 골목 부근인 서문시장을 지나 달성 북동쪽으로 흘러 팔달교 부근에서 금호강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대구천은 건들바위 부근에서 재분류하였다. 대구천 분류는 건들바위에서 북동류하여 봉산치안센터, 경대사대부설 중·고 등, 삼덕성당, 대구시청 부근을 지나 대구역 동쪽의 태평아파트 부근에 있었던 향교의 동쪽 경계를 지나 칠성동 쪽으로 흘러갔다(송언근·강경택, 2017).

9~18m 정도의 폭을 가졌던 대구천(송언근·김종혁, 2017)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름철 홍수 시에는 범람하여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것은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졌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정조 2년(1778) 대구 판관 이서이다. 그는 여름철 홍수 때면 향교와 읍성을 침수시키는 대구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동보에서 수성교 사이에 제방을 쌓아 대구천으로 신천 물이 유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 제방을 '이공제'라 부른다(송언근, 2017). 이로 인해 신천에서 대구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공제 건설에 따른 대구천 유량 감소는 유로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송언근·김종혁(2017)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1929년 1/600 지적도 분석을 통해 '대구천 폭이 인구가 적은 달성 쪽은 15~18m,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인구가 많았던 서문시장 부근은 9~12m, 대구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읍성 남동쪽의 현 신성미소시티아파트에서 동아백화점 사이는 3~6m였다는 것을 밝혔다. 같은 대구천이고, 거리 차가 1.4km에 불과한 데, 시가지화에 따라 하천 폭의 지역 차가 크다. 이는 이공제 건설로 대구천 유량이 감소하면서 인구 밀집 지역의 대구천 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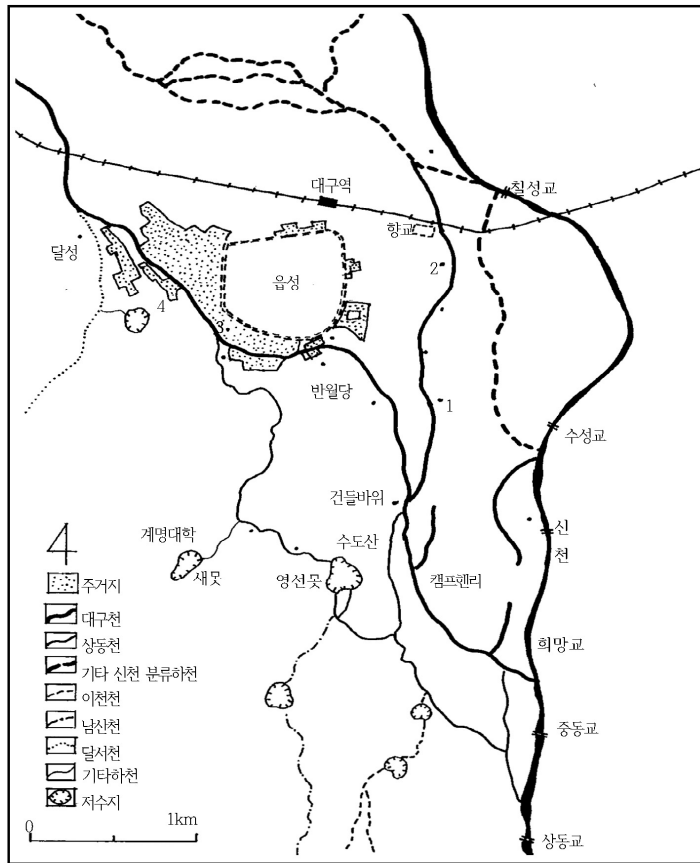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대 대구천 하계망(1: 경대사대부설중고등, 2: 시청, 3: 계산성당, 4: 서문시장)

출처 : 송언근·강경택, 2017.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78년 이서에 의해 대구천 유로에 큰 변화가 온 149년 뒤인 1927년, 대구천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건들바위 남쪽의 수도산에서 신천 쪽으로 대구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이다. 이를 대구천 유로 변경 다음 해인 1928년 대구 시가지도(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에는 수도산에서 80연대 북쪽 경계를 따라 동쪽의 신천으로 연결된 검은색의 직선화된 인공 유로가 있다. 이것은 수도산에서 건들바위 쪽으로 흐르던 대구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동쪽으로 변경한 것이다.

수도산에서 신천으로 대구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 이유는 1927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다.

여름철 홍수 때면 달서천(대구천)²⁾ 범람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남산동, 봉산동, 덕산동, 계산동 일대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로 1927년 달서천(대구천)이 대구 도심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산에서 일본군 80년대 북쪽으로 인공적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1927년 여름에 새로운 인공 유로를 따라 대구천(달서천)이 신천으로 배수되었다 ... 달서천(대구천)의 상류배수지 부근에서 신천으로도 흘러가게 하는 신수구(新水溝)를 내어 피해지 일대에 흘러내리는 수량을 훨씬 줄여지게 하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공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여전히 대구천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었다.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구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동쪽의 신천으로 변경하였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1920년대 중반까지 여름철 홍수 시 대구천은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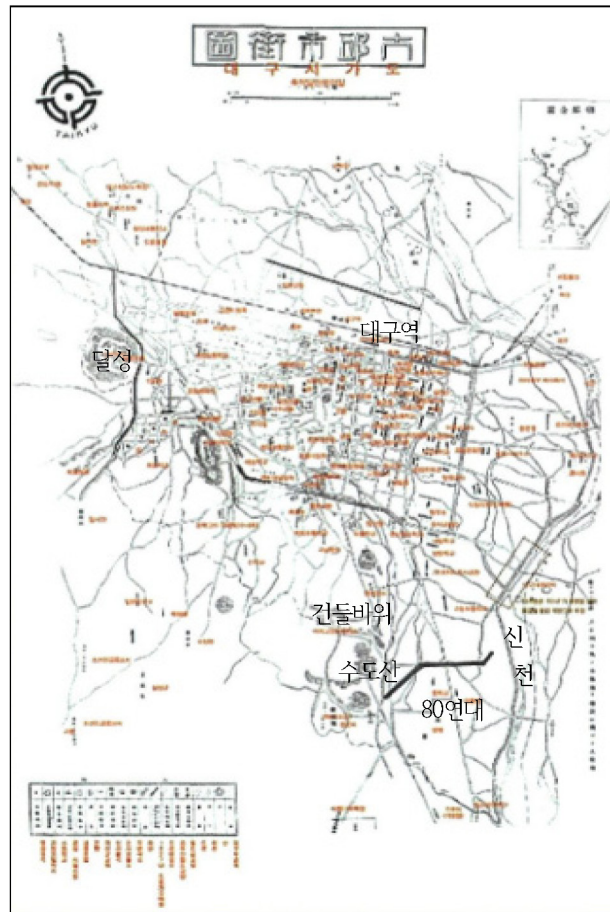


그림 2. 1928년 대구 시가지도

출처 :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연구자 재구성

읍성의 남쪽과 서쪽에 살던 조선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둘째, 수도산에서 신천으로 대구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은 여름철 대구천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대구천 유로 변경으로 대구부의 중심부로 흐르던 대구천 유량은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대구천 유로 변경으로 홍수 시 대구천 범람을 예방하였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유량이 감소하면서 대구천으로 유입하는 생활하수들로 악취와 보건 위생 문제가 심각해 진 점이다. 이를 1927년 대구천 유로 변경 이전, 대구천이 흘렀던 명치정, 남산정, 덕산정, 봉산정 등 조선 사람들 거주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1923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알 수 있다.

“대구에서 조선 사람이 많이 사는 거리라 하면 남산정을 비롯하여 명치정 덕산정 봉산정 신정, 달성정과 시장정이다. 이 모든 거리에 각종 시설을 보면 짐차 하나가 완전하게 지나갈만한 도로가 없다. 비나 눈이 오는 때이면 진흙이 튀어 오르며 하수구 하나 있지 않고 길가의 도랑이란 것은 비가 조금만 와도 길에 넘칠 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악취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코를 찌르며...”

기사에는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비만 오면 하수가 넘쳐 악취가 풍기고, 짐차 하나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 풍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1923년의 상황이 이러하니 대구천 유로 변화로 유량이 더욱 줄어든 1927년 이후 대구천과 그 주변 환경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III장 2절에

서 상술하겠지만, 조선인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유입처가 대구천이기 때문이다.

대구천 유량 감소의 문제는 1930년에 간행된 “경상북도 사회사업요람”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부내 시가지 정리 결과, 종래 조선인들이 세탁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 거의 도랑으로 변경되어 조선인들이 적당한 세탁장을 잃어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와 같이 더러운 웅덩이에서 세탁하는 것은 극히 비위생적인 것을 감안하여 1921년 3월 부비로 부유지 시장북통에 길이 23.7m, 폭 3.6m의 저수도를 개착하고 이에 하천수를 통하게 한 결과 공설세탁장 이용자가 많아지고 조선인들에게 호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이후 용수의 소통을 양호하게 하는 오수 정체의 단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1923년 3월 동남부 조선인 민가가 조밀한 덕산정의 민유지를 임차해 전기모터를 이용 정수를 펴 올리고 제 2 공설세탁장을 설치했다. 1926년도부터는 두 곳 세탁소 모두 수도물을 무상으로 통과시키면서 한층 더 편리해졌다(경상북도내무지방과, 1930).

위의 내용에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가지 정리로 대구천이 도랑 규모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천 유로 폭이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깨끗한 세탁을 위해 세탁소에 수도물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대구천 물은 세탁에 부적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부 공설세탁장 건립이 1921년과 1923년이고, 공설세탁장에 수도물을 공급한 것은 1926년이다. 이로 보면 1927년에 있었던 대구천의 인위적 유로 변경, 그리고 인구 증가와 시가지화는 대구천 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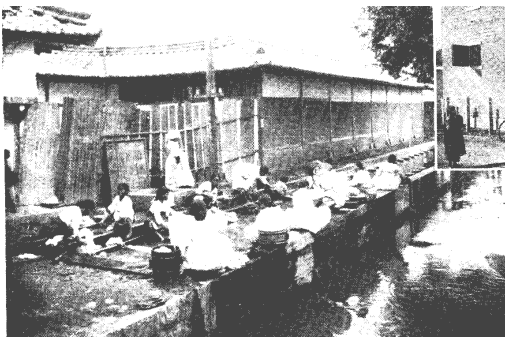


그림 3. 덕산정 대구천의 대구부 공설세탁장 모습
출처 : 경상북도 내무지방과, 1930.

감소와 유로 축소를 낳고, 그것은 대구천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대구천 골목화의 외적 요인으로서 간선도로 건설과 내·외적 요인으로서 하수구 공사

전장에서 살펴본 이공제 건설과 대구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은 대구천 유량 감소를 낳고, 그것은 인구가 밀집한 대구부 중심부로 흐르는 대구천에 오염과 위생이라는 내적 문제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수구 공사와 대구천 복개이다. 본 장에서는 대구천 골목화의 전제인 대구천 복개를 이끈 외부 요인인 간선도로 건설과 내·외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 하수구 공사가 대구천 골목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1. 외적 요인으로서 간선도로 건설과 대구천 골목화의 관계

1927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지난 대정 12년부터 국고와 지방비의 보조를 얻어 총 70만원의 예산으로 년내 중에 완성될 달서교³⁾로부터 천주당 앞 논중(畝中)까지 와서 거기서 굽히어 봉산정까지 일직선으로 개통할 도로를 남문시장⁴⁾까지 그치고 나머지 공사는 후년도로 넘긴 후 그 나머지 공사비로 수해의 근본치인 달서천(대구천)의 상류배수지부근에 신천으로도 흘러가게 하는 일지류세음(一支流細音)인 신수구(新水溝)를 내어... 달서교에서 남문시장까지의 달서천(대구천)은 4간 폭의 콩크리 암거(暗渠)로 묻어버리고 암거 양변에 삼간식(三間式)⁵⁾ 합 십간폭의 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절기 이전에 완성케 하여 금년부터는 수재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바...

위의 기사는 '1923년(대정 12년)부터 이루어지던 대구천 복개 공사와 간선도로 공사를 1927년에는 남문시장까지만 하고, 남은 예산을 여름철 대구천 범람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산에서 신천으로 대구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이다.

기사 내용이 맞다면 1928년 이후 대구 지도에서 달서교에서 계산성당을 지나 남문시장까지의 대구천은 복개로 지표상에서 사라져야 하고, 그곳에는 십간폭의 도로가 발달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달서교에서 남문 시장 사이의 대구천은 골목으로 바뀌어야 한다.

1927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의 실행 여부를 간선도로 공사 이전인 1918년 대구 지도(그림 4)와 간선도로 공사 이후인 1930년 대구 지도(그림 5)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의 1918년 1/10,000 대구 지도에는 봉산정에서 북서류하던 대구천이 현재의 루나미 본점(봉산동 35-36) 부근에서 서류하여 덕산정, 명치정 2정목과 남산정 사이를 거쳐 신성미소시티아파트 부근에서 북서류하여 계산성당 앞을 지나 달서교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선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달서교에서 봉산정 사이에 간선도로가 없다.

그림 4와 달리 1930년 대구 지도인 그림 5에는 계산성당에서 봉산정 사이에 간선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이로 볼 때 1927년까지 달서교에서 남문시장 사이, 10간 폭의 간선도로 건설 기사는 일정 부분만 사실로 보인다. 이는 ‘첫째,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맞은편의 제일교회까지는 동아일보 기사와 달리 대구천 유로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구간의 간선도로 폭은 계산성당에서 남문시

장 사이보다 좁다. 둘째, 계산성당에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사이에는 대구천이 복개되고, 그곳을 따라 간선도로가 넓고, 곧게 발달해 있다’라는 특성 때문이다.

1927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와 달리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맞은편의 제일교회 사이가 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아일보의 1933년 8월 19일, 1934년 3월 23일 기사와 1935년 10월 21일자 매일신보에서도 알 수 있다. 먼저 동아일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치정, 시장정의 사이를 흘러 달성정으로 빠지는 달서천(대구천)은 교통이 번잡한 시가지의 한복판을 흘러 적지 않은 거린데도 여기 교통상 부주의를 막을만한 하등의 시설이 없어 왕왕히 허황극을 연출하는 사고가 적지 아니하여 다년간 비난의 적이 되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야부당국에서는 명년도에나 암거를 만들어 그 위로 버스가 다니도록 할 계획을 세워 경비 5만원을 던질 예산이라는데 명년도에는 실현될는지 주목되는 바란다(동아일보, 1933. 8. 19.).

대구부회 제2일인 20일에 예산안 제1 독회 질문에...달서천(대구천)의 시설에 대하여 조선인 측 의원들의 맹렬한 질문이 있어 장내를 긴장케 하였다. 먼저 김완섭, 배영덕, 임상조 3씨로부터 이에 대하여 달서천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대구시가의 한복판을 흐를 뿐 아니라 더구나 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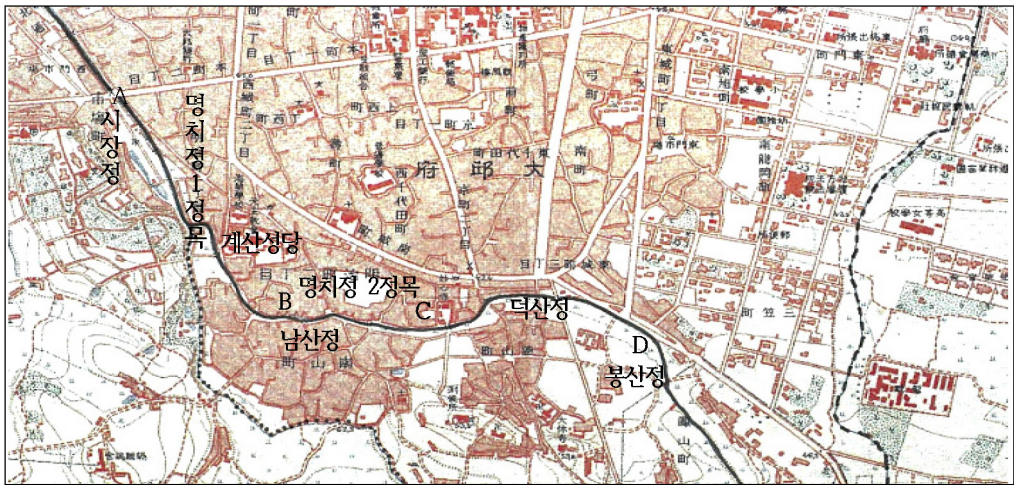


그림 4. 1918년 대구지도(A: 달서교, B: 신성미소시티아파트, C: 동아백화점, D: 루나미(美), 실선: 대구천, 파선: 대구천 분류, 점선: 상동천)

출처 : 대구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2008. 연구자 재구성

변에 도로가 되어 있어 교통이 자못 복잡한 여기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교통상 적지 않은 위험을 느끼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심지어 짐 실은 하차까지 자칫 잘못하여 개울 가운데로 떨어져 빠지는 사고가 이루 헤일 수 없이 생기는 것이다....(동아일보, 1934. 3. 23.)

기사에 있는 달서교에서 남문 시장 사이에 대구천 위로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은, 그림 5의 1930년 대구 지도에서 보듯이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밖에 없다. 더불어 대구천 양편에 도로가 있는 곳 역시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뿐이다. 이곳에 아무런 시설이 없이 사람과 마차까지 빠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비판한다. 이로 볼 때 1933년뿐만 아니라 1934년 당시에도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의 대구천은 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35년 10월 21일자 매일신보에는 아래와 내용이 있다.

대구부내 명치정과 시장정 간에는 약 300m의 하수구가 있어, 양 정(町)의 교통상 비상한 불편을 감하여, 가교가 없는 관계로 우회를 하지 않으면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양 정(町)의 주민은 부 당국에 가교 요망을 하여오든 중, 금번 부당국에서도 급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가교 설계 중인바, 대체로 신교는 길이 8m, 폭 5m의 대교를 가설하기로 하는 외에 하수구 양편에 위험 방지 난간까지 가설하기로 되었다.

매일신보에 있는 명치정은 명치정 1정목(丁目)으로서 이곳은 계산성당에서 달서교 사이의 대구천 우측 지역이다. 시장정은 대구천 좌측 지역이다(그림 4 참조). 기사에 따르면 두 지역 사이에는 약 300m의 하수구가 있고, 그것의 폭은 5m 정도이며, 하수구에는 다리가 없다. 이 같은 특징의 하수구를 그림 5의 1933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보듯이 계산성당에서 달서교 사이로 흐르는 대구천 길이는 300m 정도이며, 이 구간에는 다리가 없다. 그리고 송언근·김종혁(2017) 연구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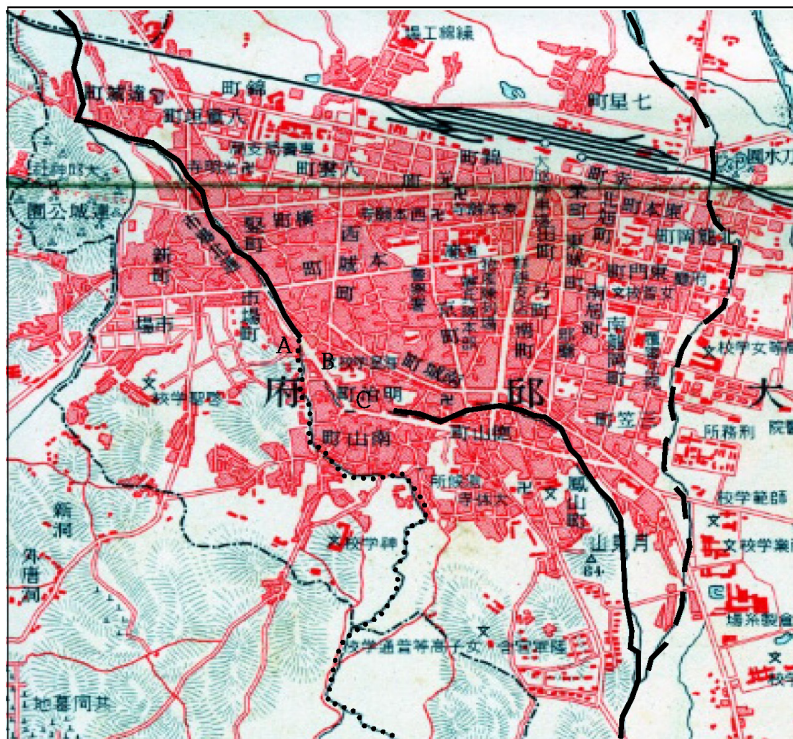


그림 5. 1930년 대구 지도(A: 대구제일교회, B: 계산성당, C: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실선: 대구천 분류, 파선: 대구천 분류, 점선: 상동천)
출처 : My Identity, <https://blog.naver.com/quixcha/222274675588>. 연구자 재구성

르면 이 지역의 대구천 폭은 5m 전후였다. 이로 볼 때, 명치정과 시장정의 교통을 가로막는 하수구는 대구천이 분명하며, 기사 내용으로 볼 때, 1935년 10월까지 대구천은 복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천은 주변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들이 모여 흐르는 하수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의 대구천 미복개는 하천 흐름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5에서 볼 수 있듯이 복개되지 않은 곳은 대구천에 상동천이 합류하는 지점부터이다. 반면 그 하류는 대구천만 흐른다. 이런 지형적 조건으로 상동천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산성당 이북의 대구천과 달리 계산성당 남쪽, 즉 계산성당에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사이의 대구천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구간의 대구천이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어 도로 확장을 위해 복개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구간의 대구천은 1927년 이후에는 골목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달서교에서 남문 시장 사이의 간선도로 건설과 대구천 복개, 그리고 그것의 골목화는 그림 6의 1937년 지도에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에는 1930년 지도와 달리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의 대구천이 복개되었고, 그

곳을 따라 일직선의 간선도로가 발달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30년 지도에서 계산성당에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까지 이루어졌던 대구천 복개와 그에 따른 골목화가 1937년 지도에는 동아백화점까지 연장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 강점기 도로 건설에 따른 대구천 복개는 달서교에서 남문 시장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같은 대구천 복개의 국지적 특성은 일제 강점기 대구 도시 개발과 관련이 깊다.

경부선 철도 공사로 일본인들이 대거 대구에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주거지는 읍성 동쪽과 북쪽이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후 대구는 보다 본격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일본에 의한 도시 건설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건설과 세로(細路) 개선, 하수구 공사도 일본인 주거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손정목, 1996; 김일수, 2003; 김주야·김영, 2011). 특히 송언근·이보영(2022)이 밝혔듯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주거지역인 읍성 동쪽과 북쪽은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직교형의 가로들이 바둑판처럼 발달한 반면 조선인들이 살았고, 대구천이 흘렀던 읍성 남쪽과 서쪽은 전통적인 미로형 가로 구조였다. 이를 그림 4, 5, 6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조선인 지역으로 흘렀던 대구천의 복개와 골목화가 특정 지역에만 이루어진 원인으로 사료된다.



그림 6. 1937년 대구 지도(A: 동아백화점, B: 신성미소시티아파트, C: 계산오거리, 검은 실선: 대구천 분류, 검은 파선: 대구천 분류, 붉은 점선: 복개된 대구천, 가는 점선: 상동천)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연구자 재구성

2. 내·외적 요인으로서 하수구 공사와 대구천 골목화의 관계

일상생활과 가축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문제로 하수구 설치와 뚜껑이 있는 암거(暗渠)로 이루어질 경우, 그곳은 악취, 미관, 보건위생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동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천의 골목화와 관련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수구 공사와 대구천 골목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하수도 체계는 구한말에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환경부, 2016). 대구에서 근대적 하수도 공사 관련 기록은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1915년에 간행된 대구 민단사에서 볼 수 있다.

대구에는 원래 하수구를 설치한 적이 없어서 상수도외 오수 모두 땅 속에 침윤되기 때문에 각종 병균을 양성해 위생상 위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큰비가 내리면 도로로 흘러넘쳐서 마루 밑까지 침수되어 거류민들이 가장 힘들어 했다. 다행히 성벽 터를 큰 도로로 만들고 십자도로를 만들면서 하수도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니시키초처럼 역 앞에는 조금 그럴듯한 하수구가 생겼지만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 하수도 공사는 시구 개정과 함께 필수 설비이므로 기대가 된다(대구광역시 문화예술통계과, 2020).

민단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구 하수도 공사가 처음 이루어진 시기는 1913년이다. 현 경상감영공원 앞 도로를 개수하면서 450m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917년 공사비 13,600원을 투입하여 921m의 대구천 개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듬해 5개년(1923-1928)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70만원을 들여 13,038m 하수도 공사를 하였다(환경부, 2016).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 있었던 하수구 공사 때는 대구천 하상을 준설하고, 굴곡을 정리하고, 폭 1.8m, 높이 2.4m의 제방을 쌓았다(손정목, 1981).

하수구 공사로 대구천 하상을 준설했다는 것은 생활 하수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대구천으로 방류되었다는 뜻이자, 대구천이 하수도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18년 3월 17일자 조선시보 기사이다. 여기에 ‘달서천(대구천)은 대구 하수도의 방출소로서...’ 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1935년 10월 21일자 매일신보의 내용으로 유추할 때도 대구천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대구천으로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수구 공사는 1918년 이후에도 1기(1917년-1918년)와 2기(1918년-1923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도로, 교량, 하천을 근대적으로 정비하여 구획별로 건축물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일종의 도시재개발사업인 시구개정사업기간이다. 1906년 통감부 치하의 서울에서 시작된 시구개정사업이 대구에서는 1913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부 세로의 확장 및 하수개수사업이 실시되었다(최석주, 2005).

1917년에서 1923년 사이의 하수구 공사는 동쪽은 동성로, 서쪽은 대구천, 남쪽은 종로통, 북은 북성로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 중 서쪽의 대구천은 위치적으로 볼 때 연구 지역인 계산성당보다 북서쪽, 즉 달성 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대구천 하수구 사업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하상 준설과 제방 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사였다. 1923년 이후에도 대구천 하수구 공사는 지속되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925년 7월 14일자 경성일보에는 ‘토목용급공사 달서천(대구천) 준설에 착수’라는 제목으로 호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이 있다. 1925년 7월 18일자 부산일보에서도 ‘달서천(대구천)의 개수 급무’라는 제목하에 수해방지를 위해 달서천(대구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1925년 8월 3일자 매일신보와 1927년 1월 19일 중외일보에도 나온다.

이는 대구천 하수구 공사의 목적이 복개를 통한 악취 방지, 오염원의 범람과 미관상 문제 그리고 보건위생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대구천 하수구 공사와 관련된 신문 기사 게재의 시대적 특징이다. 대구천 하수구 공사와 관련된 기사는 1927년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927년 수도산에서 대구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동쪽의 신천으로 변경한 후 수해 피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로 볼 때, 대구천 하수구 공사의 궁극적 목적은 수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하수관 공사의 형태이다. 조선 총독부 조선토목사업지(1937)에 의하면 당시 하수구는 뚜껑이 없는 박스형 개거(開渠)도 있지만, 뚜껑이 있는 콘크리트 관거와 같은 암거(暗渠)도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1918년 3월 1일에서 1922년 3월 30일까지 4년에 걸쳐 149,239원을 투자하여 직경 45~106cm의 암거를 2.4km 설치하였다. 암거 직경과 3~5m 대구천 폭을 비교하면, 하수구 공사에 사용된 암거들이 대구천 복개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가로에 따른 하수구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하나는 일제 강점기 하수구 공사 특징이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하수구 공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1932년 11월 1일자 경성일보에는 제 4기 시가간선도로에 나란히 발달한 하수구 대개축공사 계획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1933년 3월 30일자 매일신보에는 ‘서부 조선인가로하수구는 불완전하다는 것보다 인간이 거주하는 곳 같지 않은데 어찌 예산을 증가하여 완비할 의사가 없는 까라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도 차도와 인도가 있는 가로의 하수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1936년 3월 20일자 부산일보에 ‘부에서는 10년도에 이어서 주요 간선도로의 하수구가 완성되도록...’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들 기사로 볼 때 일제 강점기 하수구 공사의 핵심은 가로에 연한 하수구와 그곳으로 연결하는 하수구 설치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하수구 공사와 대구천 복개의 관계로 볼 때, 일제 강점기 하수구 공사와 관련성을 가진 대구천 복개 지역은 전 절에서 살펴본 신성미소시티아파트와 동아백화점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은 대구읍성의 주문인 남문 주변이고, 대구천을 따라 영남대교가 발달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대구천 주변에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대구천 유로 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좁았다. 이 지역의 대구천 폭은 1929년 1/600 지적도에 의하면 3~6m였다. 이는 당시 또 다른 인구밀집 지역인 구서문시장 대구천 폭의 1/2~1/3에 불과하다. 1929년의 폭이 그러하다면 인구가 증가한 8년 뒤인 1937년의 이 지역 대구천 폭은 이와 같거나 좁았을 것이다. 이를 1943년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개된 대구천 골목 폭은 3~4m에 불과하였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하천 폭은 좁고, 유량은 적다. 반면 개개의 집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염물질 배출은 많아

진다. 오염물질들이 대구천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악취가 나지만 작은 홍수에도 범람하여 각종 오염물질의 주변으로 퍼진다. 이것은 보건위생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와 더불어 인구가 밀집한 이 지역의 대구천은 주민들 이동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지역은 시구개정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세로 개선과 하수구 개선 사업에 적합하다. 이뿐만 아니라 계산성당에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사이의 대구천은 간선도로 건설로 이미 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에서 동아백화점 사이의 대구천 복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이 지역의 대구천은 세로 개선과 더불어 하수구 공사를 목적으로 복개되면서 골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장소가 의미를 가질 때는 그곳과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고 맥락적일 때이다. 본 연구는 대구의 곳곳에 남아 있는 대구천 골목이 대구를 이해하는 의미로운 장소가 되기 위한 이야기 구성의 한 토대로서, 대구천 골목화의 시작인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대구천 골목화 요인과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대구천 골목화의 핵심 요인은 대구천 복개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골목화의 유형적 특징으로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간선도로 건설에 의한 대구천 복개로 인한 골목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대구천 복개와 골목화이다. 전자와 관련된 지역은 달서교에서 신성미소시티아파트 사이로서, 이 지역의 대구천 골목화는 달서교에서 남문시장 사이의 10간 폭 간선도로 건설과 관련된 대구천 복개로 이루어졌다. 후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구천 골목화는 신성미소시티아파트에서 동아백화점 사이로서, 이곳은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하고, 대구천 폭은 가장 좁은 곳이다. 이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로 악취와 보건 위생에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구천을 복개하여 이동의 통로와 하수구 문제를 같이 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대구천 복개에 의한 골목화의 지역적 특징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연구 지역에서 대구천 복개가 이루어진 곳은 달서교에서 남문시장 사이뿐이다. 그 외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천이 복개되면서 골목으로 바뀐 곳은 없다. 이는 일제 강점기 도시화가 일본인의 주거지인 대구 읍성 동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 깊다.

셋째, 대구천 복개와 골목화의 시기는 주로 1923년~193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간선도로 건설과 세로 개선, 그리고 하수구 개수가 주요 목적 중 하나인 1910년대 시구개정에서 대구천 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지역에서 대구천 복개가 시작된 시기는 1923년이다. 이때부터 1927년까지 계산성당에서 신성미소스티아파트 사이에 간선도로가 건설되면서 이 구간의 대구천이 복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3년 8월 19일과 1934년 3월 23일 동아일보와 1935년 10월 21일자 매일신보로 볼 때, 달서교에서 계산성당 사이의 대구천 복개는 1935년 후반부에서 193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성미소스티아파트에서 동아백화점 사이의 대구천 복개는 1930년에서 193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점기 대구천 골목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대구천 골목화의 핵심 요인은 간선도로 건설이다. 둘째, 하수구 공사와 관련된 대구천 골목화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일본인 중심의 도시 개발로 조선인 거주지역으로 흘러던 대구천의 골목화는 국지적이었다. 넷째, 대구천 골목화는 대개 1923년~193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본격적인 대구천 복개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천 복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방 이후의 대구천 골목화는 다음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註

- 1) 상동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언근, 강경택, 2017, 1910년대 신천 좌안 축적평야의 하계망 특성: 건물바위에서 상동교 사이를 중심으로”를 참고할 수 있다.
- 2)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의 어디에도 달서천, 대

구천이라는 지명은 없다.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신문 기사에는 본 연구의 대구천이 달서천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리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문의 달서천을 대구천이라 부른다. 첫째, 1933년 다무라가즈히사(田村一久)가 저술한 『조선향토지리의 실례: 대구편』에 대구읍성 남쪽과 서쪽으로 흘러던 하천을 대구천으로 기술하였다(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2021). 둘째, 달서천은 대구 읍성 서문인 달서문 밖을 흘러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대구 읍성 축조 이전에는 어떻게 불렀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현재의 달서천은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서문 시장과 달성을 지나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달서천과 현재의 달서천은 다르다. 이로 인한 문제를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신문에는 대구천을 달서천이라 불렀지만, 해방 직후 신문에는 두류산에서 흘러내린 하천을 달서천으로 불렀다. 지명 혼란이 생겼다. 넷째, 이 하천은 대구 읍성 남문과 서문 밖으로 흘러 대구부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영남대로가 이 하천을 연하여 발달해 있었다. 때문에 이 하천은 대구민들과 외지인들에게 대구와 관련하여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하천이었다. 지명도 이와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천 연구자들의 모두는 대구부의 서쪽으로 흘러던 하천을 ‘대구천’이라 부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신문기사는 달서천(대구천)으로 이중으로 기술한다.

- 3) 1912년 6월 26일 매일신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구 본정(本町)에서 시장에 통하는 달서교는 옛날부터 석교(石橋)인데 그 폭이 심히 협착하여 교통상의 불편이 적지 않음으로.....” 이로부터 볼 때 당시 달서교 위치는 서성로와 국채보상로 101 길이 만나는 곳으로 영신타올 1호점 부근으로 추정된다.
- 4) 1927년 1월 14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는 남문 시장은 현재 남산 1동에 있는 남문 시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남문 시장은 성내 2동의 현염매시장 터에 있었다. 남문 시장이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은 1933년이다(향토사교육연구회, 2002).
- 5) 간(間)은 길이 단위로 1 간(間)은 1,81818m이다.

6) 일본인 주거 지역 중심의 도시 개발은 1922년에 계획되어 1927년에 확정된 대구도시계획에서도 알 수 있다. 도시 계획 수립 초기에는 1946년 인구 15만 명을 상정하여 대구 역사(驛舍)를 북쪽으로 이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선인 시가지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대구 일본인 거주민단은 역사 이전과 조선인 시가지 정비를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대구부는 조선인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설치안을 폐기하고 일본인 시가지 조성을 우선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1927년 5월에 가결하였다(이기조, 2005; 최석주, 2005). 일본인 중심의 도시 개발 문제는 당시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1923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와 1933년 3월 30일자 매일신보뿐만 아니라 1935년 3월 30일자 동아일보에도 나타난다. 그것에는 ‘남산정을 필두로 명치정, 신정, 달성정 일대의 대구 서남부에는 도로와 하수구가 아직도 원시시대의 그것을 방불케 하여 한번 비가 내리면 진흙 바다로 화하여 보행이 곤란케 됨은 물론 하수구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수천호가 절비하게 모여 있는 남산정에는 도로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만일 화재의 불행이 있을 때는 소방자동차의 내왕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참고문헌

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대구신택리지」, 서울: 북랜드
 경상북도 내무지방과, 1930, 「경상북도사회사업요람」, 국립중앙도서관
 김일수, 2003, “일제 강점기 전후 대구의 도시화과정과 그 성격”, 역사문제연구, 10, 83-121.
 김주야·김영, 2011, “대구시 도심부 공간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주거환경, 9(2), 59-7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2020, 「대구민단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2021, 「조선향토지리의 사례: 대구편」,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2008, 「옛 사진으로 본 근대 대구」, 대구: 엔픽스
 손정목, 1981, “우리나라 하수도 사업의 사적 고찰”, 도시문제, 179, 9-22.

손정목, 1996,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송언근, 2017, “이공제와 신천 분류 하천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804-819.
 송언근·강경택, 2017, “1910년대 신천 좌안 축적평야의 하계 망 특성: 건물바위에서 상동교 사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568-585.
 송언근·김종혁, 2017, 「신천과 소하천 유로 변천 조사 보고서」, 대구: 신일출판사.
 송언근·이보영, 2022, “대구천 골목 분포의 특성과 발생 맥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4), 479-494.
 이기조, 2005, “일제하 대구부 시가지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조선총독부, 1937, 「조선토목사업지」, 국립중앙도서관.
 최석주, 2005, “일제 강점기 대구의 도시계획”, 지리학논구, 24, 68-89.
 경성일보, 1925년 7월 14일자, “土木應急工事 達西川浚築に着手す”
 경성일보, 1932년 11월 1일자, “大邱の幹線道路と下水溝の大改修”
 동아일보, 1923년 12월 20일자, “朝鮮人市民을 無視하는 大邱府當局의 態度”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자, “年來로 懸案이든 大邱治水工事 夏期前에 完成計畫”
 동아일보, 1933년 8월 19일자, “多年非難의 敵인 大邱達西川暗渠”
 동아일보, 1934년 3월 23일자, “大邱府中心通路인 達西川の施設問題”
 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자, “大邱府 道路政策痛擊 朝鮮人村은 惡臭가 코를 찌러 府會에서 激論數時間”
 매일신보, 1912년 6월 26일자, “大邱 達西橋 改築”
 매일신보, 1925년 8월 3일자, “達西川 根本的 改修”
 매일신보, 1933년 3월 30일자, “朝鮮人 街路下水溝 不完全을 非難”
 매일신보, 1935년 10월 21일자, “大邱府 市場町 下水溝架橋 陳情”
 부산일보, 1925년 7월 18일자, “今回の 水害に 鑑み 達西川の 改修 急務”
 부산일보, 1936년 3월 20일자, “工費 五萬圓て 下水溝と 道路”
 조선시보, 1918년 3월 17일자, “達西川 改修 工事 進歩”
 중외일보, 1927년 1월 19일자, “達西川 改修 工事 着手”
 향토사교육연구회, 2002, 「새로 쓴 대구역사기행 1: 역사·인물·지명·전설」, 대구: 도서출판 영한.

환경부, 2016, 「한국하수도발달사 2권 부문사-지방하수도사」,
서울: 찬프로미디어.
My Identity, <https://blog.naver.com/quixcha/222274675588>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Correspondence: Un Gun Song, 42411, 219 Jungang-
daero, Nam-gu, Daegu,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unsong@dnue.ac.kr)

교신 : 송언근, 42411,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대명동),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unsong@dnue.ac.kr)

투고접수일: 2023년 2월 23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4일

